

시론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김선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산을 깎고 강을 돌리며, 바다를 메워 도시를 세우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기술의 발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키웠고, 우리는 그 환상 속에서 문명을 쌓아 올렸다. 그러나 그 문명의 그림자 아래,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정말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올여름, 지구 곳곳에서 기후 재난이 속출했다. 폭우와 가뭄, 산불과 태풍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의 오만함을 조롱하듯, 그러나 단호하게 되물었다.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고 믿는 순간, 자연은 그 믿음을 무너뜨린다. 겸손은 그 무너짐 속에서 시작된다.

겸손이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자의 존재를 존중하는 깊은 성찰의 자세다. 자연 앞에서의 겸손은,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나무와 바람, 물과 흙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필자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낮아진다. 숲의 침묵, 바다의 호흡, 하늘의 무한함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세계다. 그 앞에서 나는 말보다 침묵을 배우고, 주장보다 경청을 배운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들려

준다.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귀를 열어야 한다.

예술과 문화 역시 자연 앞에서 겸손을 배운다. 수많은 시인과 화가, 철학자들이 자연을 주제로 삼았지만, 그들은 자연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의 신비를 감각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비우려 했다. 자연은 인간의 거울이자, 스승이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술은 가장 먼저 경고해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을까? 도시의 빛과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를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계절의 변화, 새벽의 안개, 낙엽의 속삭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자연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기후 위기와 생태 붕괴의 시대에,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 오히려 자연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 시작은 겸손이다. 자연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워진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라."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오늘도 숲의 그림자 속에서, 바람결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선다. 자연은 나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눈을 되찾기 위해, 매일 걷고, 듣고, 쓰고, 살아간다.

자연은 나의 스승이자 친구이며, 내가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다. 그 앞에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다시 배우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나무 한 그루의 생애, 강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은 모두 인간의 삶과 닮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친다. 인내와 순환, 소멸과 재생의 법칙을,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가 있고 지내던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기 때문이다.

자연 앞에서 겸손해진다 것은 결국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깊은 생명을 바라보는 일, 그 느린 걸음으로 더 넓은 세계를 감각하는 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함께 숨쉬고, 함께 존재하게 된다. 그 순간, 자연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된다.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단순한 자연이나 배경으로 보지 않고, 함께 숨 쉬는 존재로 인식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나무 한 그루의 생명, 새 한 마리의 비상, 바람 한 줄기의 흐름 속에 인간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대상화할 수 없다. 그 깨달음은 겸손을 넘어 존재의 연대감으로 이어진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묻는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는 자연을 향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보호하거나 지배하려는 시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진정한 생명의 존엄이 깃들여 있다.

"자연은 말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들려준다"-리벤드라니트 타고르-

현장칼럼



설정환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대한민국은 지난 10여년간 정원을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닌 도시 브랜드이자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키워왔다. 정원은 이제 공원의 범주를 넘어 도시의 품격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무대가 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며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으로 세계적 위상을 얻었고, 태화강 생태관광으로 세계적 위상을 얻었고, 태화강 국가정원은 도심 하천을 생태의 강으로 되살려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바꿨다. 두 곳 모두 생태와 환경을 기반으로 관광과 문화를 결합해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민간 정원도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 군위의 '사유원'은 건축과 철학, 자연을 결합해 걷는 행위 자체가 성찰이 되도록 설계됐고, 경기도 양평의 '메딩골정원'은 니체의 사상을 모티브로 한 세계 최대 인문학 정원으로 독창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정원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도시와 사회를 반영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4월 국회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

광주국가정원, 시민참여형 호남 미래정원으로 만들자

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전국 주요 광역지자체들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경쟁에 나섰다.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과 풍암호수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총 200만㎡에 달하는 부지는 기존 국가정원은 물론 사유원·메딩골정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현재 인천, 부산, 대구 역시 소래습지, 낙동강 하구,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광주가 경쟁 도시와 차별화를 이루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관광적 측면에서 순천만은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생태 콘텐트로 차별성을 확보했지만, 광주 계획은 음악분수·공연장 등 시설 중심이라 상투적이다. 규모만 강조한다면 관리 부담만 커질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사유원과 메딩골정원은 철학과 예술을 통해 브랜드를 확립했다. 광주 역시 민주주의와 예술의 도시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의 조화를 모색하며 정원의 콘텐트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생태적 측면에서 태화강과 순천만이 복원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광주도 풍암호 수질 개선과 습지 복원을 병행해야 '생태도시 정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광주는 주민참여예산제, 마을자치 활동 등 시민 주도의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국가정원 운영에 접목한다면 단순히 '구경하는 정원'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가꾸

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참여형 정원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정원 정책의 새로운 전형이 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순천만 사례는 정원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 역시 무등산·광주호·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복합 관광상품을 통해 숙박·음식·교통은 물론, 로컬푸드·청년 창업·문화예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 담양 죽녹원, 곡성 섬진강, 나주 영산강 등과 연계한 광역 관광벨트 구상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국가정원은 단일 도시 차원의 사업을 넘어, 광주-전남이 함께 브랜드를 공유할 수 있는 초광역 전략 자산이다.

나주가 추진 중인 영산강 국가정원과 광주가 2021년부터 논의해온 국가정원 구상도 이번 계획에 녹아들어야 한다. 정원은 본질적으로 행정 경계에 갇히지 않으며,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사람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살아난다.

정원에 핀 민들레 향기가 산을 넘어 퍼지고 정원 나무의 열매를 먹는 새가 바다를 건너듯 이 광주 국가정원은 결코 광주만의 정원일 수 없다. 시민이 함께 가꾸고 호남이 함께 나누는 미래정원으로 자리매김할 때, 광주 국가정원은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빛날 것이다.

크든 작은 시민사회의 논의와 제안들을 씨앗하듯 해야 한다. 사유원과 메딩골정원의 사례가 말해주듯 철학, 사람 그리고 과정에 주목할 때 진정한 가치가 살아난다.

현장칼럼



문병운 장흥소방서장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선물이 오가지만, 그중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안전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추석 명절, 안전을 선물하는 확실한 방법

수 없기 때문에 평소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 두 가지는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크게 줄여준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명절은 전기와 가스 사용이 늘고 음식 조리기가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화재 위험이 커지

는 시기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 댁이나 자녀가 사는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값비싼 선물보다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진정한 마음의 선물이 될 것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이 널리 확산돼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 이번 추석, 안전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 주길 바란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위축된 건설경기 광주 방직공장 개발사업 파급되나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뼈격거리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포기한 것이다.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29만8천㎡ 부지에 총 4천315세대의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특급호텔, 역사공원 등을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9년 말 완공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도급 계약 조건이 맞지 않이라며 철회했고, 대우건설은 단독 시공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피언시티 복합개발 피에프브이는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으로 연내 선정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 건설과는 별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근심이 일었다. 현대백화점그룹 측도 시공 업체들과 협상 중이고, 10월 말을 전후해 착공에 들어간다고 선을 그었다. 더현대는 10월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광주시 민선8기 역점 현안이다. 더현대는 서울의 15배 크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대단위 주택 개발도 주목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착공과 분양을 코앞에 두고 공동 시공사가 연이어 이탈하는 이례적 상황에 놓였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에도 연쇄적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로 현물(2천800억 원) 성격은 도로·공원·공공용지 등으로 쇼핑물 개점 전까지 조성하고, 현금(3천억 원)은 착공부터 준공 사이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었다.

문제는 시공사 재선정이 수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다. 현물 기부사업 공기를 맞추기 힘들어질 수 있어서다.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광주시는 추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준공 후 약성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지방의 위축된 건설 경기가 언제 반동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분양 해소 정책, 인·허가·착공 감소 등 관련 지표가 대부분 부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의 염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옛 방직부지 개발의 전체 일정 변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취약계층 돌봄에 차질 없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10월 1일부터 5일까지다. 광주지역은 11곳에서 열린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일정액을 돌려준다. 차례상 비용을 털어주는 한편으로 지역경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에 대한 복구작업이 이어지는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 3천28만명의 대이동이 시작했다. 고속도로 일일 통행량은 지난해 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환으로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시민과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생활 안정과 편의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응급진료체계

도 가동하고 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다. 경기 침체와 트러플 관세 등 어두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제주용품과 선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예년보다 활기가 덜한 편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이 일부 효과를 내긴 했으나 근본 처방으로 부족하다.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졌다.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맞도록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만일의 재난, 감염병을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완벽하게 유지돼야 한다. 새 정부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식기간도 다 잡아야 한다. 또한 국가 전산망 일부 장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사회적 연대 그 절실한 즙음이다. 특히 명절이 더 힘든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돌볼 안전장치 마련에 유념해야 한다. 복지시설에 온정의 손길도 계속되길 바란다. 작은 정성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픽 뉴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서 지켜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2029년까지 민간은 3.5%, 공공은 4.0%까지 끌어올린다.

50인 이상에서 99인 미만 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려 의무고용률에 근접하면 1인당 월 최대 45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 명단 공표 기준은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한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포인트(p) 오를 때 1만5천명 정도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다. 공공 기업은 0.2%p가 오르면 4천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민간은 3만명, 공공은 4천명 정도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8천원에서 209만6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과받는다. 이런 부담금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높은 편이다. /연말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0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